

월요광장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2020년 공공임대주택을 200만 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 호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문제를 최고 이슈라고 진단하며 한계를 넘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시사했다.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다양한 평형과 부대시설 등 질적 혁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렇듯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혁신을 강조했는데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책인 것 같다.

광주시도 집값 상승과 전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인 ‘광주형 평생주택’을 1만8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부동산 대책의 변화로 인한 지방의 투기 수요와 신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수요는 강력히 단속하고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한꺼번에 해결할 투 트랙 전략이다.

광주시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는 점을 감안해 분양주택보다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질 좋은 고급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서민층을 위한 주택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광주형 평생임대주택은 저

공공임대주택

렴한 임대료로 단지 내 생활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의 진행은 1단계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2030년까지 1만8000가구 공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현재 광주시 전체 주택의 10.5%대인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광주형 평생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은 기존의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로 범위를 넓히고, 면적 역시 기존 소형평형에서 중형평형으로 확대했다. 광주시의회도 지난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광주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을 심사·의결해 사업 진행에 대한 분위기가 고무적이다.

그럼에도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 과거 기사에 보면 서울의 초등학교생 아들이 친구들에게 월세에 산다고 했더니 ‘월거지’ (월세 거주자를 거지에 빗대 비하하는 은어)라고 놀리더라는 소식을 전하며 요즘 아이들은 거주 형태나 거주 아파트 브랜드로 별명을 부르고 따돌림도 시킨다고 했다. 그래서 혹여나 비틀어지지 않을 까 하는 노파심에 이사까지 고려하는 부모도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생 사이의 주거 차별 문제는 여전하다. 최근 엔 주거 형태를 기준으로 ‘월거지’, ‘전거지’ (전세 거주자를 거지에 빗대 비하하는 은어) 등으로 비하하는 은어가 유행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브랜드인 휴먼시아와 거지를 합성한 ‘휴거’라는 말도 임대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차별하는 신조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월거’ ‘휴거’ 등의 나쁜 신조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

데, 과거 광주도시공사도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계획에서부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산층과 취약 계층이 함께 살 수 있는 소셜믹스 형태의 공급이 필요할 것이고, 평생 주택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품질 검사 등의 조직이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조사 내용을 보면 특정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로 ‘품질이 우수하고 투자 가치가 높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친근하고 익숙하거나, 세련되거나 신뢰감이 있는 브랜드에 대한 선호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LH나 도시공사의 브랜드는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앞에서 말한 취약 계층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낮지 않았나 생각된다.

많은 부분에서 제약이 있고 다양한 부분을 살펴야 하는 점에서 어렵겠지만 유명 브랜드 건설회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어떨까 싶다. 예를 들면 ‘광주 상무 ○○ 광주시공사’ 이런 식의 브랜드도 괜찮지 않을까? 대형 브랜드와 같이할 수 있고, 그 브랜드를 일정 사용할 수 있다면 이미지나 시공 능력, A/S정도는 기대하고 또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순한 생각을 해 본다.

며칠 전 뉴스에서는 빌라 전세 사기 사건으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힘겹게 법적 싸움을 해 나가는 모습이 소개되었다. 하지만 이런 주거 복지적 차원의 정책이 계획되고 실현되면 전 국민이 직·간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도 오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꿈꾸는 2040



정달성
위민연구원 이사
생활정치발전소 소장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거치며 도시가 성장하고 국가의 경제 규모는 커졌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파괴를 불러왔다. 가족 중심의 생활에서 마을 중심, 그리고 도시 중심으로 바뀌면서 인간보다는 물질 중심으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수도권에 경제와 문화 기반이 집중되면서 지방의 위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중앙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상당 부분 지방으로 이양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민주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나마 실행되면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이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처럼 이제는 파괴된 공동체의 복원과 사람 중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노력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과 제도의 미흡함 속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 공동체 사업의 첫 단추는 도시화 속에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인데 얼마 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이 국회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응원한다

공정회가 열리고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그 첫걸음을 땀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상정 시도는 있었지만 법정 시한을 넘겨 끝내 폐지되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 들어서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형석 의원 등 다수가 공동 발의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현재 21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통해 지원 중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또한 공간 마을 활동 관련 용어에 합의된 정의가 없어 혼란을 겪는 마을 현장의 목소리가 어느 정도 반영된 점도 긍정적이다.

제정안은 ‘세대간 갈등, 이웃간 무관심, 고독사 등의 사회 문제는 그동안 이를 해결해 온 지역 공동체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며 우리 사회가 복잡 다변해짐수록 연대·협력·협동을 토대로 한 공동체 정신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개념의 명확한 정의다. ‘마을 공동체’는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된 마을(읍·면·동/자치구) 단위 단체로 정의했고, ‘마을 공동체 활동’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주민이나 마을을 위한 활동으로 명확히 했다. 마을공동체 활동 영역에서는 이미 사용하는 개념이지만 법으로 용어의 뜻을 정의한다는 것은 새롭게 공신력의 옷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게 쓰이고 있는 마을 활동가에 대한 정의 등은 빠져 있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마을 활동 사업의 핵심 일꾼이자 주체인 마을 활동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명시되지 않았다.

또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강행 규정 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서 자치단체 등의 의무가 소극적일 수 있다고 본다. 마을 공동체 역량이 지역마다 자치구마다 다른 상황에서 기본법에 담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마을 공동체 영역은 사회적 사각지대를 메우는 공공 영역인 만큼 공공의 재원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의 규정 이 아닌 강행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기본법에 모두 담을 수 없다면, 준비된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광주는 마을 공동체 역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준비가 잘된 만큼 기본법을 토대로 새 모델을 준비하면서 조례 제정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이 조례로 진행되었던 떠돌이 신세 마을 공동체 활동들이 이제야 제대로 된 터전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따라서 주민들과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모범인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으로 좀 더 나은 기본법을 만들고 우리부터 광주시 조례 준비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초석을 다지는 2020년이 됐으면 한다.

기고



한강희
김대중·만델라 평화공헌
건립준비위원회 학술위원장

누구나 가슴이 벅차올 때를 자신의 의사를 역면 그대로 전달하기에 벅겁다. 김대중 대통령을 추억하고 노벨 평화상 수상 20주년을 회고하면서 맛따뜨리는 감정이 딱 그렇다. 이럴 때는 당시의 분위기를 팩트에 차분히 실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다.

노벨 평화상은 다른 부문과 달리 스웨덴이 아닌 노르웨이 국회가 선출한 5인 위원회가 선정해 노벨이 세상을 떠난 날을 기려 매년 12월 10일에 시상한다. 군나르 베르케 노벨평화상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00년 평화상 수여 당시 노르웨이 시인 롤드크밤의 ‘마지막 한 방울’이라는 시구를 인용하며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옛날 옛적에 풀 두 방울이 있었다네 / 하나는 첫 방울이고 / 다른 것은 마지막 방울 / 첫 방울은 가장 용감했네 / 나는 마지막 방울이 되도록 꿈꿀 수 있었네 / 만사를 뛰어넘어 우리가 우리의 / 자유를 되찾는 그 방울이라네 / 그렇다면 누가 첫 방울이기를 바라겠는가?”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평화 정신을 추억하며

장문의 수상 배경을 요약하여 본다. 전반부는 수상 이유와 배경이고, 후반부는 김대중과 유사한 세계적인 평화·인권 운동가들을 거명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김대중의 성과들을 적시하고 있다.

“햇볕 정책은 고난과 박해에서 나온 산물이다. 즉 5년 반의 수감 생활, 3년여의 망명 생활, 6년 반의 자택 연금, 다섯 번의 죽을 고비, 네 번의 국회의원 낙선, 세 번의 대통령 선거 낙선, 의문의 교통사고, 납치와 내란 혐의로 인한 사형 선고를 받고도 대권 도전 26년 만에 수평적인 정권 교체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김대중의 용기 있는 행동은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인 넬슨 만델라(1993년 수상), 소련의 핵물리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안드레이 사하로프(1975년 수상), 미얀마의 독재에 항거해 영웅적인 투쟁을 한 아웅산 수지(1991년 수상), 동티모르의 인권을 지킨 호세 라모스 오르타(1996년 수상), 동방 정책을 통해 동서독 통합을 이끈 빌리 브란트(1971년 수상) 등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용서할 수 없는 것까지 용서하여 반(反)보복 정치를 실천했다. 구체적으로 보안법, 노조 결성권, 남북 햇볕 정책, 법적·제도적 여권 보호 등 인권 정책을 활성화했다. 요컨대 분단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남북 간 자주적 통일 노력이라는 민족사의 새 전기를 6·15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0주년을 즈음해 대한민국이 그를 다시 소환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가졌던 철학과 이념, 정신과 사상, 가치와 신념이 똑바르고, 남다르고, 우리 모두를 아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그의 족적을 기리기보다는 외면하고 방관해온 게 사실이다. 그를 기리는 다양한 시민 활동 및 이에 대한 지원 역시 인색한 측면이 많았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들어 광주시는 시민 평화제를, 전남도는 김대중·만델라 평화사업으로 김대중 인권·평화 정신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극히 바람직한 일이다. ‘김대중 인권·평화의 날’을 제정하고, 김대중 아카데미를 만들고, 국제적 규모의 김대중·만델라 평화 사업의 대역사를 펼쳐나가야 한다.

정치가 진정으로 국민에 기여하려면 정치 지방생의 시금석, 현실 정치 혁신의 이정표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공영할 수 있다. 가뜰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 우리는 사표로 내세울 만한 지도자를 추억하게 된다. 수다한 집권 위정자들이 초라한 성적표를 남겼고 그 대가는 국민이 치렀다. 지금, 다시, 김대중 리더십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다. 살아가는 자의 미덕과 한계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역사를 믿는 도리밖에 없다. 일찍이 DJ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설파하지 않았던가.

社說

코로나 하루 1천 명…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국내 코로나19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거세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결국 1000명 선을 넘어섰다. 첫 환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최다 기록이다. 우려했던 위기 상황이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만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30명 늘었다고 밝혔다. 전날 950명에 이어 이를 연속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며 ‘심리적 마지막선’이었던 1000명마저 돌파했다. 특히지역 발생 확진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폭증세는 수도권 교회와 요양병원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다 학원과 음식점, 가족·지인 모임, 군부대 등을 고리로 일상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786명에 달했고 광주 14명, 전남 5명 등 비수도권도 216명에 이르는 등 전국 확산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특히 광주에서는 교회 세 곳에서 여덟 명의 확진자가 나와

‘교회발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가운데 어제는 광주교도소 수용자 여섯 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방역 전문가들은 이번 3차 유행 시기가 바이러스의 생존이 유리한 겨울철이어서 당분간 큰 폭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 2단계, 수도권 2.5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가 별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주간 거리 두기를 엄격수 상황했는데도 확진자는 더욱 가파르게 늘고 있다.

자칫하면 통제 불능 상태로 빠져들 수 있는 최대 위기인 현 상황을 감안하면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고통스럽더라도 방역 단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려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확진자 급증으로 부족해진 병상과 생활 치료 시설 확보도 서둘러야 한다. 시민들도 이제 연 말연시 모임이나 행사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겠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일상을 잠시 멈추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광주 아파트값 왜 오르나 했더니 역시나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7%(전주에는 0.18% 상승) 올라 집값 상승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광주 지역에 외지 투기꾼들이 몰려들면서 남구 봉선동과 광산구 수완동 등지의 주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분석된다.

이와 관련 광주 지역이 외지인들의 아파트 투기장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광주시의 점검 결과 외지인들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사례가 무더기로 드러났다. 시는 최근 외지인 매수가 많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 자료(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를 조사했는데 전체 실거래 신고 3만 5576건 중 외지인 매수는 5723건(16%)이었다.

외지인(매수인) 거주 지역을 보면 전

남이 302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수도권도 1098명이나 됐다. 이밖에 전북 411명, 경상·울산 318명, 충청 313명, 부산 224명, 대구 189명, 인천 72명, 제주 43명, 강원 35명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었다.

외지인 매수는 신규 아파트는 물론 남구 봉선동의 30년 이상 및 개별공시지가 1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외지인들이 오래된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것은 향후 재개발·재건축 등을 노린 투기 행위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외지인들의 투기를 막지 못하면 집값은 안정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들이 안을 수밖에 없다. 투기로 인한 집값 급등은 또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당국은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트위터에 하게 되면서 너무 많은 말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묵언수행을 하면서 부족한 스스로를 성찰하고 마음을 밝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초, 국내 언론은 헤민 스님이 묵언수행(默言修行)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했다.

1년 전인 2012년에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출간했으며 5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거느리며 ‘영혼의 멘토, 스타 스

묵언수행

말 대잔치에 질린 나머지 ‘영혼의 위로’를 찾아부 팔로워들은 “너무 길지 않게 돌아와 달라”며 아쉬워하기도 했지만, 일부는 “스님 말이 더 많아진 것 같고, 그 말의 무게가 자꾸 가벼워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럴 때는 오히려 잊혀지는 게 좋다. 몇 년 묵언수행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다. 그로부터 6년 후 국내 언론에는 헤민 스님이 ‘남산이 바라다보이는’ 자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정식 승려가 된 이후 미국 뉴욕의 아파트를 구매·보유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가 쏟아져 세간을

놀라게 했다. 무소유의 정신을 몸으로 보여 준 범정 스님이나, 무려 8년간이나 잠잘 때도 드러눕지 않고 수행하는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성철 스님을 존경해 왔던 우리 국민으로서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뉴스였다.

그가 그동안 말해 왔던 이야기, 고통받고 좌절하는 한국 청년들을 위로해 주었던 수많은 조언의 진실성마저 의심받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느라 여념이 없는 국내 정치인들의 막말 대잔치에 질린 나머지 ‘영혼의 위로’를 찾아부 나섰던 우리 국민의 상처와 실망감은 결코 적지 않았다.

“한두 사람의 비평에 상처받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한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아파하지도 말아요. 안티가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기 내어 지금 가고 있는 길, 묵묵히 계속 가면 돼요.” 헤민 스님의 책에 나오는 이 말, 이제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홍철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자국(국무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